영남 산불 피해 '한마음'으로 돕는다

한마음선원, 5786만원 자비손길
비구니회, 피해사찰 1억 8천만원
소방공무원에 격려금 3천만원도
총지종 · 태고종서 십시일반 이어
중신회, 고운사 위로금 5천만원



한마음선원은 4월 21일 국내15개 지원 사부대중이 모연한 5786만원을 진우스님에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속속 모아지고 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4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국내 15개 지원의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 5786만원을 전달했다.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이번 산불로 사찰은 물론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님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보탰다"고 밝혔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특히 포항지원에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피는 한편,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국비구니회는 4월 18~19일 소방청과 고운사, 운람사 등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사찰 7곳을 잇따라 방문해 1억 8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지원은 3월 말부터 20여일 간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전국의 비구니스님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은 데서 비롯됐다.

18일 세종시 소방청을 찾은 비구니회는 산불 진화에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격려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비구니회는 의성 고운사, 운람사, 만장사, 석불사를 차례로 방문해 위로를 전했고, 19일에는 청송 보광사, 안동 용담사, 의성 선나원 등을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호계원장 정묵 스님은 4월 21일 1000만원을, 수원 봉녕사 사부대중과 승가대학 동문들은 4월 24일 5000만원을 쾌척했다.

불교종단도 기금 전달 행보에 나섰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4월 24일 진우 스님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4월 25일 2000만원을 전달하며 조속한 복구를 염원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김추연) 집행부는 4월 24일 진우 스님에 종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모연금 1743만원을 전달했다.

현장을 직접 찾아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4월 21일 고운사에서 화마로 소실된 도량을 살펴보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도 4월 19일 고운사를 방문해 뭇생의 평안을 기원했다.

조계종 법계위, 종덕·현덕 품서식…100명 품수

4월 23일, 중덕 · 정덕 품서식
성운 스님 등 법계위원 위촉도


종덕 · 현덕 법계 품수자 스님들이 새 가사를 정대하고 있다.

"불조 혜명을 바르게 잇고, 용맹정진해 중생 구제의 원력을 더 크게 하겠습니다."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승랍 25년 이상 비구·비구니스님들이 출가 초발심을 되새기고, 중생구제에 나설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법산 스님)는 4월 2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덕·현덕 법계품서식'을 봉행하고, 100명의 스님(비구스님 62명, 비구니스님 38명)에게 종덕·현덕 법계증과 19조 가사를 수여했다.

종정 성파 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25년 세월 동안 올곧게 정진해온 종덕·현덕 법계 품수자 스님들을 찬탄했다. 이어 성파 대종사는 "오늘 법계 품서는 더 높은 지위와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자리"라며 "모두가 자신의 수행과 교화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법계는 숭고한 수행과 헌신을 종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인하는 뜻깊은 자리이자, 앞으로 교단을 이끌 원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함께 부여하는 장엄한 순간"이라고 축하했다.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과 법계위원 스님들은 1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인 비구 미수 스님과 비구니 설해 스님에게 법계증을, 비구 효신 스님과 비구니 도민 스님에게 가사를 대표로 수여했다. 정대 후 새 가사를 착의한 종덕·현덕 법계 품수자 스님들은 해량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인천의 사표로서 종단 화합과 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141명 스님(비구스님 83명·비구니스님 58명)들을 대상으로 중덕·정덕 법계품서식도 진행했다.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성운·지원·도서 스님에게 법계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내영 기자

한국불교계,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애도

한국 불교계가 4월 21일 오전(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21일 오후 애도문을 발표하고 "큰 별이 지고 세상은 다시 어두워졌지만 교황께서 남기신 사랑과 헌신의 길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남아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전 세계 가톨릭 신자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인류와 함께 애도한다"고 말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도 4월 21일 애도문을 내고 "한국 종교계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숭고한 삶과 영적 유산을 기리며, 일생 동안 실천한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본받아 종교 간 화합과 인류의 보편적 사랑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애도문에서 "전 세계 모든 종교인에게 귀감이 됐다. 생명존중, 환경 보호, 인류 화합은 지구촌이 직면한 시대적 화두이자 모든 종교가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교황님의 자애롭고 위대한 행적이 인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살아 숨 쉬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연합단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교황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안식을 염원하며 "그의 뜻과 실천이 이 땅의 희망으로 길이 남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신중일 · 임은호 기자

조계종, 6·3 대선 앞두고 정책기획단 구성

자문위원 우봉 스님 · 상임위원 김장실 이규민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통문화 발전과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할 정책기획단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우스님이 4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정책기획단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에 종책특보 우봉 스님, 상임위원에 김장실 제26대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이규민 조계종 정무특별보좌관을 각각 위촉했다.

또 노욱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김상기 더불어민주당 종교특위 불교 수석부위원장, 천우정 국회직원불교신도회장, 김동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 국장, 박준수 국회 법우회장, 오정석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장이 정책위원으로 위촉됐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불자대상에 정병국·이승기·임시현·김윤봉


정병국


이승기


임시현


김윤봉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22일 2025 조계종 불자대상 수상자로 정병국 참좋은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승기 배우, 임시현 양궁선수, 김윤봉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열린다.

김내영 기자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총본산 조계사,
산불피해 천년가람 재건을 위한
희망의 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